

Q 방법을 활용한 규슈지역 대학생들의 한국 유학생에 대한 인식유형 탐색

류영진

(규슈산업대학)

《 목 차 》

1. 들어가며
2. 일본 내 한국인 유학생의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 2.1. 일본 내 한국인 유학생의 최근 증감 경향
 - 2.2.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설계
 - 3.1. 연구대상(P-sample)
 - 3.2. Q 항목의 구성(Q-sample)
 - 3.3. Q 항목의 분류(Q-sorting)
4. 분석결과
 - 4.1. 제1유형: 문화적 친밀형
 - 4.2. 제2유형: 우위 확인형
 - 4.3. 제3유형: 의식적 거리두기형
 - 4.4. 일치항목
5. 논의 및 고찰

<Abstract>

Ryu, young-jin. 2022. 5. 31. **Perception Type of Japan College Students toward Korean Students in Japan by Q Methodology.**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1, 51-76. The purpose of this exploratory study is to derive types of how

Japanese students perceive Korean students. In this study, the Q methodology is used for categorization. The Q methodology is a fusion methodology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developed by Stephenson. A total of 29 Q-samples were constructed for the Q methodology, and a study was conducted on 39 P-samples.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using SPSS 18.0.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ere three types. The first type is 'cultural intimacy'. This type considers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as a medium for cultural experiences and shows high intimacy. The second type is 'confirmation of superiority'. This type basically recognizes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as competitors. These types also recognize the discrimination Korean students face in Japan. In other words, it is also a type that shows a very ambivalent perception. The third type is 'conscious distancing'. These types are conscious of the existence of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but do not try to approach them first. They think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mselve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presented. First, Japanese students do not want to exclude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positive perception of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field of cultural exchange. (**Kyushu sangyo University**)

[Key words]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Japan College Students, Q Methodology, Perception Types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일본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를 고찰하기 위한 탐색적 시도이다. 일본으로의 유학은 수학 완료 후 우리나라의 학문연구 진흥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이선영 등 2021), 최근에는 양국의 인구감소와 취업문제라는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교류의 초기 단계로서, 양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류영진 2017; 류영진 2018). 한국인 유학생들과 일본 현지 학생들 사이의 교류는 한일양국의 교류와 소통, 이해의 중요한 매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표면의 정치적 상황이나 국가적 갈등을 넘어선 젊은 세대의 일상과 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 간의 이해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김희재 등 2015: 283-284). 실제로 유학생은 교류 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함윤주 2019: 117) 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이다. 즉, 한일 양국의 소통과 교류 더 나아가 비전이라는 의미에서도 유학생들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최근의 현황은 그다지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 후쿠오카 대한민국총영사관(2021)의 자료에 의하면, COVID-19의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이후 한국인 유학생들의 고립감, 일본 내의 취업 등이 과제로서 부상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일본인 학생 사이의 네트워크가 좁어지고 교류가 적어지자 일상생활 리듬이 무너지며 학업 불량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인 유학생들과 현지 일본인 학생들 사이의 원활한 교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한국인 유학생들의 일상과 학업의 질적 성취를 담보하는 의미에서도 꼭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다.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서 학위과정 혹은 비학위과정, 장기 혹은 단기로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타문화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보는 인식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이송이·심태은 2018: 5). 한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인 대학생들도 분명 그 나름의 주관성을 가지고 한국인 유학생을 인식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소통의 양상도 어느 정도 주요한 패턴

이 존재할 것이다. 본 연구가 질문항목 및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 부분 참고하고 있는 이송이·심태은(2018)은 한국 내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인 대학생들 사이의 인식유형에 대하여 연구하며 대학을 두 집단이 서로의 감수성과 소통역량을 함양하는 장소로 삼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솔직한 인식을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식의 표출은 두 집단의 관계가 교육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두 집단 간의 협력과 소통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간문화적 역량향상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두 집단의 수용과 협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송이·심태은 2018: 6).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분석의 대상에 한국인 유학생과 현지 일본 학생들을 대입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①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일본인 대학생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각각의 주관성을 유형화하고, ②각 유형들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양국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형성하고자 한다.

2. 일본 내 한국인 유학생의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2.1. 일본 내 한국인 유학생의 최근 증감 경향

본 절에서는 간단히 일본 거주 한국인 유학생들의 현황을 짚어 두고자 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0년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입안하여 유학생들의 유치에 힘을 쏟았으며, 2019년 5월에 일본 고등교육기관 재학 유학생은 312,214명을 넘어섰다(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 2020). 하지만 최근 COVID-19 등의 영향이 겹치면서 일본에의

유학생 유입은 감소 경향에 들어섰다¹⁾.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일본으로의 유학생들은 2019년 31만을 돌파하여 정점을 찍은 이후에 2020년에는 10.4%가 감소한다.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실시한 '2020년도 외국인유학생 재직상황 조사결과'에 의하면 2020년 5월 1일 현재 일본 국내의 유학생은 279,5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한국 국적의 유학생은 모두 15,785명이었다. 이는 중국, 베트남, 네팔에 이어서 4번째 규모로 유학생들 전체 규모 내에서는 5.6% 규모이다(文部科学省 2021, 1-2).

그러나 현재 일본의 유학생 정책은 유학생들에게 일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입학 이후 이들이 일본사회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질적인 측면에서의 케어는 적절히 실시되고 있지 않고(이선영 등 2021: 275) 있으며, 실제로 일본 내의 한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10,528명으로 1차적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2012년에 다시 1/4수준인 2,700명까지 감소하였고 이후에 증감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의 양적인 유학생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담보상태이다(이선영 등 2021: 275). 앞서 인용한 최근 조사에서도 한국 국적 유학생은 전년도에 비하여 2,553명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주 대상인 규슈지역²⁾은 한국과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지역과도 쉽게 연결되는 아시아로의 환관 지역으로 불리고 있으며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일본 내에서도 유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일본 경제산업성 규슈

- 1) 문부과학성(2022)의 발표에 따르면 본격적인 팬데믹 국면에 접어들고 나서 한국국적 재류유학생은 1년간 1,538명이 줄어 9.7%의 감소율을 보였다.
- 2) 규슈지역은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가장 큰 4개의 섬 중에 서남쪽에 위치한 섬을 말한다. 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 사가현, 오이타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 이상의 7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산업국의 2021년 5월 1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규슈지역의 유학생은 2015년 21,59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29,581명에 달하였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규슈지역도 계속하여 유학생이 줄어 들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에는 28,718명으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24,580명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이 중 한국 유학생들은 1,358명으로 규슈 내 전체 유학생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로는 중국, 베트남, 네팔에 이어 4번째이다(經濟産業省 2022).

특히 북부 규슈지역의 중심지인 후쿠오카현의 경우는 2019년을 기준으로 규슈 내 유학생의 약 66.36%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일본 학생들 역시 후쿠오카현의 학생들이다. 후쿠오카현의 국제화 데이터북에 의하면 후쿠오카현의 한국 국적 유학생은 749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福岡県 2020: 120).

2.2.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일본 내의 한국인 유학생이라는 제한된 대상과 학생 상호간의 인식이라는 상황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 절에서는 폭넓게 관련된 연구들을 개괄적으로 짚어두고자 한다.

이송이와 심태은(2018)은 유학생들이 대학에 유입되는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해석은 다문화수용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적 상황을 수용하는 방식 혹은 태도에 관한 것으로, 유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친밀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이송이·심태은 2018: 7). 이는 공존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며 개인이 인식하는 공존의 범위에서 폐쇄적, 개방적, 비판적, 호감적인 태도로 드러날 수 있다(이송이·심태은 2018: 8). 즉, 한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일본대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지점은 일본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공존의 범위'를 살펴보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금동과 류영진(2021)은 규슈의 대학생 5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을 분석하면서 일본의 대학생들이 다양한 형태로 편향된 자기만의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편향된 인식에 기반하여 한국과 한국인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편향과 왜곡이 미디어나 SNS에 의한 인식 왜곡 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공존의 범위'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 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왜곡을 줄이고 동시에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 유학생과 일본인 대학생 사이의 소통의 중요성과 공존의 범위 자체를 우선 짚어봐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현지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연구의 경우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특히 중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을 다루는 문헌이 다수 있지만 자국민이 외국 유학 시 사례를 보는 연구는 미진하다(이선영 등 2021: 275-276). 박혜인(2018)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밝히며 사회활동 및 사회적지지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현지의 한국 유학생들의 상황으로 치환하여 생각하여 볼 때 상호관계성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국내에서는 이선영 등(2021)이 수행한 일본 거주 한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해당 연구에서는 일본 거주 유학생들의 경우 대학 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측면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어린 나이에 문화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현지 대학교수 및 외국인 학생등 다양한 인적자원과의 교류 및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한다(이선영 등 2020: 276).

일본의 연구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들과 일본 대학생 사이의 인식을 다루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인 유학생들의 일본어 능력이 한국인들의 아이덴티티와 주위와의 관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小宮修太郎 등, 2001), 한국인 유학생들의 일본 기업 내의 갈등이나 채용 이유, 캐리어 형성 노력에 대한 연구(岡村佳代 등 2016; 文吉英 등 2018; 山本晋也 2020), 한국인 유학생 개인의 유학생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中山亜紀子, 2007) 등 다양한 테마의 연구들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정작 가장 핵심인 유학 생활의 일상과 직결되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일본인 학생 서로 간의 인식과 관계를 다루는 연구는 전무한 상태였다.

3.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본 내 한국국적의 유학생들에 대해서 일본 대학생들이 어떠한 태도로 인식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특정 집단에 대하여 타 집단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고찰하는 것이 가장 주요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성 평가에 가장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는 Q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Q방법론은 Stephenson(1953)에 의하여 제안된 방법론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와 같이 주관성을 갖는 일상적인 생각은 우연이나 무작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내적구조(inner frame)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 기술적으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근거하여 개개인의 다양한 관점을 몇 개의 핵심요인으로 단순화시켜 갈등과 같은 사회적 현상을 파악하는 분석기법이다(류영진 2016: 67).

3.1. 연구대상(P-sample)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들은 북부규슈의 일본인 대학생 중 한국인 유학생과 함께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는 5개 대학³⁾ 39명을 최종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탐색적 의미에서 가설발견에 초점을 두기에 가장 연구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연구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표 1 P-sample 학년 및 학부>

번호(P)	성별	학년	학부	번호(P)	성별	학년	학부
P1	남	1	경제학부	P21	여	2	인문학부
P2	남	3	경제학부	P22	여	1	인문학부
P3★	여	3	경제학부	P23	남	1	인문학부
P4	여	3	경제학부	P24	여	2	인문학부
P5	남	2	경제학부	P25	여	3	인문학부
P6★★	여	3	외국어학부	P26	남	3	문학부
P7★★	남	3	외국어학부	P27	여	2	문학부
P8	여	2	예술학부	P28	남	2	국제문화학부
P9	남	2	예술학부	P29★	여	3	국제문화학부
P10	남	3	지역창업학군	P30	여	2	국제문화학부
P11	남	1	지역창업학군	P31★	여	3	국제문화학부
P12	남	1	정보공학부	P32★	남	3	국제문화학부
P13	남	2	상학부	P33	여	1	인간과학부
P14	남	3	상학부	P34	남	1	인간과학부
P15★	남	3	상학부	P35	여	3	인간과학부
P16	여	2	스포츠과학부	P36	남	2	지역공창업부
P17	남	3	스포츠과학부	P37★	남	2	지역공창업부
P18★	여	3	경제학부	P38	여	1	이공학부
P19	여	2	경제학부	P39	남	1	이공학부
P20	남	1	공학부				

※한국인 유학생 경험경로: 제미형식 수업=★,
한국유학생의 멘토 역할=★★, 미표식=일반강의형식 수업

- 3) 5개 대학은 기타큐슈시립대학, 후쿠오카대학, 규슈산업대학, 규슈공업대학, 사가대학으로 각 대학의 최초 대상자로부터 스노우볼 형태로 표본을 확보하였다.

한국인과 함께 들은 수업의 형태를 살펴보면 7명은 세미나(Seminar)⁴⁾ 형태로 한국 유학생과 함께 지역활동에 참여하거나 PBL(Problem-Based Learning, 과제해결형학습) 과제를 함께 진행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그 외의 학생들은 일반 강의 형태의 수업에서 한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수학한 경우이다. 단 특수한 경우가 있었는데 일반 강의 형태의 수업의 학생 중 2명(P6, P7)은 대학으로부터 한국인 유학생의 적응을 돕는 멘토로서 지정되어 빈번하게 한국인 유학생과 소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Q 방법론은 소표본 이론(small sample doctrine)에 근거하기에, P표본이 많아지면 특정 항목에 표본이 집중되어 지나치게 수치가 커지는 오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판단한다(류영진, 2016: 68). 연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에 인터뷰를 진행하여 Q항목에 활용 가능한 진술문을 먼저 얻어 내었다.

3.2. Q 항목의 구성(Q-sample)

Q 항목의 내용들은 사실(fact)이 아닌 자아지시성(self-referent)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분류절차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고유한 자신의 의미를 항목에 부여하고 개인적, 심리적 의미를 항목에 붙여넣는 것’을 추구한다. 즉, Q 항목들은 옳고 그름이 아닌 응답자들의 의견이 투사될 수 있는 문항이어야 한다(류영진 2016: 70). 한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 주관성의 유형을 망라할 수 있어야 한다.

스터디 모임은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20일 사이 5회에 걸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먼저 Q 방법론 자체에 대하여 함께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Q 방법론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있

4) 세미나의 독일어 발음으로 일본에서는 특정 교수의 전문분야 또는 설정한 테마를 자유선택하여 수강하는 형태의 수업을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줄여서 '제미'라고 부른다.

어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술문을 도출할 것인지 함께 검토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가 많은 부분 빗지고 있는 이송이·심태은(2018)의 논문을 번역하여 학생들과 함께 윤독하며 연구목적의 대강을 공유하였다.⁵⁾

<표 2 Q-sample 항목>

Q-항목
1) 졸업 후에는 다들 일본을 떠날 것이니 나랑은 별로 상관없다.
2) 한국에 직접 가보기 전에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다.
3) 한국 유학생들은 일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4) 성격이 좋은 유학생과는 연인이 되어보고 싶다.
5) 한국의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다.
6) 한국인 유학생들은 일본 학생들과 대학문화가 비슷한 듯 달라서 신비롭다.
7) 한국인 유학생과 대화하면 내 사고도 넓어지는 것 같아 좋다.
8) 일본의 대학은 운영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한국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9) 한국인 유학생들은 자기주장이 강해서 친밀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10) 한국 유학생들은 다른 국적의 유학생들에 비하여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보다는 개인적 활동이 많다.
11) 한국 유학생들은 다른 아시아 국적 학생에 비해서는 문화적 수준이 높다.
12)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만화와 같은 콘텐츠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13) 한일 갈등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후로는 한국 유학생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
14) 한국 유학생들이 유학지로 일본을 택하는 것을 보면 아직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5) 본 연구는 해당 논문에서 연구의 접근방식과 기본적인 틀을 상당 부분 빗지고 있다.

-
- 15) 한국 유학생들은 언어나 IT 기술에 특히 뛰어나기에 일본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내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
- 16) 한국인 유학생들은 일상에서 다른 유학생에 비하여 양국 관계를 이유로 하는 어쩔 수 없는 차별에 힘들어 한다고 생각한다.
-
- 17) 한국 유학생들은 조금이라도 한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 심하게 흥분한다.
-
- 18) 한국 유학생들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장을 관철시킨다.
-
- 19) 일본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유학을 온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
- 20) 나 자신이 한국 유학생들에게 가지는 부정적 인식을 되돌아보면 나 또한 한국으로는 유학을 가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다.
-
- 21) 한국 유학생들과는 술자리를 가지면 금방 친해지는 느낌이 든다.
-
- 22) 한국 유학생들은 정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
- 23) 한국 유학생들과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면 비교당해서 불쾌하다.
-
- 24) 한국인 유학생이 먼저 도움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마음이 있다.
-
- 25) 일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에서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
- 26) 한국 유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
- 27)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럽다.
-
- 28)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다.
-
- 29) 일본에 유학을 올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부럽다.
-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도 본 연구에 적용가능한 Q 항목을 학생들과 협의하며 함께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학생지원기구, 문부과학성의 통계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각자가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신문기사, 동영상, 문학작품 등을 가져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형태로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으로 확보된 1차 항목들 중 중복되는 의미의 항목을 제거 또는 통합하는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비구조화된 29개의 항목을 작성하였다.

3.3. Q 항목의 분류(Q-sorting)

본 연구에서는 류영진(2016: 72-74)에서 활용된 Q분류 방식을 참고하여 분류작업을 시행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Q항목들은 4×8cm의 카드에 각 진술문을 인쇄하여 Q카드로 제작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이 카드를 직접 분포표 위에 놓는 작업을 통하여 분류하고 자신의 인식 태도를 표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Kerlinger(1986)의 분류방식에 따라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부터 가장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까지 분포표 내 배치할 수 있는 카드의 숫자를 지정하는 강제분포를 적용하였다. 사용된 Q 분포의 분포표는 <표4>와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Q 분류작업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 45일간 개인 혹은 소그룹 형태로 연구자가 직접 동참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전원이 Q 방법론을 활용하는 연구에 참여한 적이 없었기에 분류작업을 시행하기 전 Q 방법론과 그 분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분류의 구체적인 과정은 이하와 같다.

① Q 분류를 위한 분포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후, ② 진술문 카드를 연구대상자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우선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③ ‘상’에 분류된 카드를 분포표 상의 +4부터 채워나가도록 하였고, ④ ‘하’에 분류된 카드를 -4부터 채워나가도록 하였다. ⑤ ‘중’에 분류된 카드들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칸에 자유롭게 배치하도록 하였다. ⑥ 1차적 분류가 마무리되면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위치를 변경하고 싶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번의 Q 분류에 약 60-8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표 3 Q-sorting 분포표>

	의견불일치 ←←←←←→→→→→				의견일치				
점수	-4	-3	-2	-1	0	+1	+2	+3	+4
배치카드 수	2	3	3	4	5	4	3	3	2

4. 분석결과

분석을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배리맥스(Varimax) 회전을 활용한 주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적인 요인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아이겐값은 1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표준화 점수를 도출한 후에 행렬을 역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각 유형별 요인적재치>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Eigen value	16.747	9.585	4.935
변량 설명량	42.940	24.576	12.655
누가 설명량	42.940	67.516	80.171
포함 P-sample 수	19명	14명	6명

분석을 시행한 결과 한국 유학생에 대한 일본 대학생들의 인식 유형은 ①한국 유학생들을 문화적 접촉 창구로 인식하며 체험을 기대하는 '문화적 친밀형', ②한국 유학생들을 미래의 경쟁자로 인식함과 동시에 본인들의 유리함을 재확인하는 '우위 확인형', ③한국 유학생들을 의식하면서도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의식적 거리두기형' 총 3가지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표5>와 같이, 각 유형들의 아이겐값은 16.747, 9.585, 4.935를 나타내었고, 전체 변량의 80.171%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Q 방법론은 설명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총 변량은 그다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4.1. 제1유형: 문화적 친밀형

가장 많은 P표본이(n=19)가 군집된 제1유형은 한국 유학생들을 문화적 접촉 창구로서 인식하면서 문화적 체험을 기대하는 유형이었다. <표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선 이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한국에 직접 가보기 전에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대상(Q2)’ 으로서 유학생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좋은 대상, 연인, 친해지는, 가까운 등의 서술어를 포함하는 친밀성을 중심으로 하는 진술에 동의를 표현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연인이 되고 싶다는 진술문(Q4)에 대한 강한 동의 태도, Q26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친밀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제1유형의 동의 및 비동의 상위 항목 (표준점수 $\geq \pm 1.00$)>

번호	Q 진술문	Z
Q2	한국에 직접 가보기 전에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다.	1.19
Q4	성격이 좋은 유학생과는 연인이 되어보고 싶다.	1.12
Q21	한국 유학생들과는 술자리를 가지면 금방 친해지는 느낌이 든다.	1.07
Q26	한국 유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1.06
Q28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다.	1.01
Q17	한국 유학생들은 조금이라도 한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 심하게 흥분한다.	-1.09
Q19	일본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유학을 온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1.04
Q3	한국 유학생들은 일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1.02
Q20	나 자신이 한국 유학생들에게 가지는 부정적 인식을 되돌아보면 나 또한 한국으로는 유학을 가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다.	-1.02
Q1	졸업 후에는 다들 일본을 떠날 것이니 나랑은 별로 상관없다.	-1.02

또한, 이 유형들은 Q2, Q21, Q28 항목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

듯이 '한국에 대한 경험', '술자리', '대중문화' 등 문화적 측면을 매개로 하는 친밀성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한국적인 문화나 콘텐츠를 투영시켜 대리 경험 해볼 수 있는 대상으로서 가깝게 지내고 싶은 측면이 강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유형들은 자신들과 별로 상관없다(Q1)' 는 진술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 심하게 흥분한다(Q17)', '취업을 목표로 일본에 오는 경우가 많다(Q19)', '일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Q3)', '나 자신이 한국 유학생들에게 가지는 부정적 인식을 되돌아보면 나 또한 한국으로는 유학을 가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다(Q20)' 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높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한국 유학생들이 일본에 대해서 충분히 가까워지고자 한다는 상호 믿음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4.2. 제2유형: 우위 확인형

총 14명의 P표본이 속해있는 제2유형은 한국 유학생들을 경쟁자로 인식함과 동시에 일본이라는 국가 내에서 본인들이 유리함을 재확인하는 '우위 확인형'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럽다(Q27)', '한국 유학생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장을 관철시킨다(Q18)' 라는 진술에 동의하며 한국 유학생들이 가진 특정한 능력을 중심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제1유형과는 반대로 일본에 취업을 위하여 유학을 왔다(Q19)는 인식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흥미로운 부분은 이들 유형은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만화와 같은 콘텐츠를 소개(Q12)' 하고 싶어하고, '한국인 유학생들은 일상에서 다른 유학생에 비하여

양국 관계를 이유로 하는 어쩔 수 없는 차별에 힘들어 한다고 생각한다(Q16)'는 점이다. 한국 유학생들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인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가지는 특징과 관계성을 함께 고려하는 유형인 것이다.

이 유형들이 동의하는 항목들은 비동의 항목과 함께 살펴보면 조금 더 그 특성이 드러난다. 앞서 동의 항목에서 일본의 문화를 알려주고 싶다거나 일본 내에서는 차별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높은 동의를 보이면서도, 한국 유학생들이 일본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Q3)고는 생각지 않았다. 일본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 이해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무언가(차별 등)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용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Q8, Q20)에도 동의하지 않기에 한국인 유학생들을 배제의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유형들에게서는 양가적인 감정으로서의 경계심도 드러난다. Q19에 동의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유학생이 되었다고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현재 일본의 국가적 정책과도 궤도를 같이 하는 IT 분야 등의 인재 유입(Q15)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딱히 한국인 유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신의 시야가 넓어진다고도 생각지 않아 자신들이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Q12)은 생각하면서 무언가 교류를 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음을 보여준다. 대상의 인식을 상당히 일방향적으로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유형들은 한국인 유학생들을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본 내에서의 한계(차별)나 일본의 개성(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우위를 느끼며, 동시에 배제는 하지 않으나 취업에 대해서도 경계적인 태도를 취하는 매우 양가적인 감정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Q14와 같은 노골적인 우위에 대한 문항에 어느 쪽으로든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표 6 제2유형의 동의 및 비동의 상위 항목 (표준점수 $\geq \pm 1.00$)>

번호	Q 진술문	Z
Q27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럽다.	1.20
Q19	일본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유학을 온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1.17
Q18	한국 유학생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장을 관철시킨다.	1.11
Q12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만화와 같은 콘텐츠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1.07
Q16	한국인 유학생들은 일상에서 다른 유학생에 비하여 양국 관계를 이유로 하는 어쩔 수 없는 차별에 힘들어 한다고 생각한다.	1.01
Q3	한국 유학생들은 일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1.48
Q20	내가 한국 유학생들에게 가지는 부정적 인식을 생각해보면 나 또한 한국으로는 유학을 가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다.	-1.26
Q7	한국인 유학생과 대화하면 내 사고도 넓어지는 것 같아 좋다.	-1.20
Q15	한국 유학생들은 언어나 IT 기술에 특히 뛰어나기에 일본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내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1.04
Q8	일본의 대학은 운영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한국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1.00

4.3. 제3유형: 의식적 거리두기형

<표 7 제3유형의 동의 및 비동의 상위 항목 (표준점수 $\geq \pm 1.00$)>

번호	Q 진술문	Z
Q6	한국인 유학생들은 일본 학생들과 대학문화가 비슷한 듯 달라서 신비롭다.	1.57
Q10	한국 유학생들은 다른 국적의 유학생들에 비하여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보다는 개인적 활동이 많다.	1.22
Q9	한국인 유학생들은 자기주장이 강해서 친밀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1.15
Q24	한국인 유학생이 먼저 도움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마음이 있다.	1.08
Q1	졸업 후에는 다들 일본을 떠날 것이니 나랑은 별로 상관없다.	1.01
Q19	일본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유학을 온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1.58
Q7	한국인 유학생과 대화하면 내 사고도 넓어지는 것 같아 좋다.	-1.37
Q17	한국 유학생들은 조금이라도 한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 심하게 흥분한다.	-1.30
Q8	일본의 대학은 운영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한국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1.08
Q26	한국 유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1.08

총 6명의 P표본이 분류된 제3유형은 한국인 유학생들의 존재는 인지하고 있지만 딱히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의식적 거리두기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Q1, Q9와 같이 애당초 자신들과 큰 관계가 없으며 동시에 스스로 다가갈 생각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Q24에 대한 동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유형 역시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딱히 부정적이거나 배제의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Q6과 Q10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도 이들 유형들이 한국 유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교류보다는 이들을 조망하는 형태의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Q9, Q10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이유처럼도 보인다. 이 지점에서 Q24는 제3유형들이 한국인 유학생들의 특징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련의 모습들(개인적, 강한 자기주장, 졸업 후 귀국 등) 때문에 자신은 거리를 두고자 하며 상대가 먼저 다가온다면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로서 해석이 가능하다.

비동의 항목들의 경우는 제1유형과 제2유형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즉,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를 보이지는 않으며 배제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준다. Q26에 대한 반응은 제1유형과는 특히 다른 측면인데, 높은 친밀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바라는 제1유형에 비하여 제3유형들이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특별히 관심도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유형들은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인 인식은 없지만 가까워지거나 알아가고자 하는 의사는 없는 상태이며 어느 정도 그 원인을 한국인 유학생들의 몇몇 특징들(제3유형이 이해하고 있는 특징들)에 귀책시키는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4. 일치항목

일치항목(consensus items)이란 각 요인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항목을 말한다(이송이·심태은 2018). 어떤 특정 유형을 구별짓는

역할을 하지 않는 항목들로 Q11, Q13, Q14, Q22, Q23, Q25, Q29 문항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 항목들은 유형 구별에 딱히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들이라 할 수 있다.

5.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일본의 대학생들이 한국 유학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탐색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과 일본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하여 진술문들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가 풍부하지 않아 일부 문헌에 더하여 학생들로부터 직접 인터뷰를 통하여 진술문을 도출해 내었다.

결과적으로 총 3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제1유형은 한국인 유학생들을 문화적 체험의 창구로서 인지하면서 높은 수준의 친밀도를 원하는 ‘문화적 친밀형’, 제2유형은 한국인 유학생들을 능력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경쟁자로서 인지하며 자신들의 우위를 확인하는 ‘우위 확인형’, 제3유형은 한국인 유학생들의 존재는 인지하고 있지만 스스로 다가가려고는 하지 않는 ‘의식적 거리두기형’ 이렇게 3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본 대학생들은 비동의 문항에서 어느 정도 유형간 유사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Q3, Q20, Q8 등의 항목에 대한 공통적인 비동의 의견은 한국 유학생들을 혐오하거나 배제하고픈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일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유학생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단 수용한 이후 어느 정도 근접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동의 항목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각 유형들의 특징이 드러났다. 3가지 유형의 특징은 동의 항목의 차이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제1유형이 가장 한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가까워지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라는 점이다. 제1유형들은 한국 유학생들을 통하여 한국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문화의 이해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일상 문화에 대한 부분까지 포괄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 유학생들과 일본 학생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주효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제1유형의 인식이 대부분 문화에만 치중되었다는 점은 문화 이외의 다른 소통의 접점이 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제1유형이 ‘문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유학생을 본다면 제2유형은 ‘능력’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었다. 두 유형이 모두 한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지만 그 결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제2유형들은 오히려 그러한 능력에 기반하여 한국인 유학생들을 경쟁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이것은 일본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전략에 있어서도 그리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이 유형들에게서 자신들의 문화를 알려주고 싶거나, 차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경쟁적 상황 속에서의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차후에 언제든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태도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끌어내어 한국인 유학생들과 접점을 찾아가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셋째, 제3유형의 경우에는 사실상 무관심에 가까운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적극적으로 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

는 의지를 보여주는 문항에의 동의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유형들은 먼저 도움을 청한다면 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문항들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생각해 볼 때 한국인 유학생들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고 유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제1유형 또는 제2유형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엄밀성보다 포괄성과 광범위성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분석결과가 3개 유형으로 정리되고 추가 유형이 도출되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추후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번 결과에서는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중간 형태, 즉 문화적인 경계심을 보이거나 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친밀하나 능력 등의 측면에서 경계를 하는 등의 유형이 따로 도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무관심에 가까운 제3유형은 있었지만 오히려 적대적이거나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역시 도출되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극단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형태의 3유형이 구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지지 않음을 고무적인 현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한국인 유학생의 절대적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인식하는 정서적 통로가 아주 제한적임을 지적해 준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일본인 대학생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가설을 발견하듯 탐색을 시도해본 것이었다. 적어도 ‘문화’와 ‘능력’이라는 중요한 인식의 소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후 간문화감수성 등을 중심으로 척도를 재구성하여 현재의 3가지의 유형을 더욱 구체화하거나 다수의 일본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조사,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 유학생 일반에 대한 조사를 나누어 진행한 후 이를 비교분석 하는 등 후속연구가⁶⁾ 많이 필요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우위 확인형과 거리두기형 학생들에게 한국인 유학생과의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하고, 문화 친밀형의 경우에도 문화교류를 기반으로 하여 한 단계 더 소통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추후 제언들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유형3→유형2→유형1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유형들을 한국인 학생과의 상호 이해의 장으로 끌어내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점은 확인하였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희재·강문원·류영진(2014). 대학생 학술문화교류 10년을 통해서 본 부산-후쿠오카의 미래, <제28차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81쪽-284쪽.
- 류영진(2016). 부산-후쿠오카 간 교류를 위한 대안적 공간 연계 방안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학연연구 2016-12-08>, 부산발전연구원.
- 류영진(2017). 부산·후쿠오카 지역에 있어서의 인재 교류의 필요성과 방향성, <부산 - 후쿠오카의 교류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부산발전연구원. 13쪽-44쪽.
- 류영진(2018). *Case study on Kitakyushu city's job policy for regional revitalization*, <The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 for Creating Jobs in East Asian Countries>.

-
- 6) 본 연구는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라는 특정 집단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반응하는 P샘플, 즉 일본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외국 유학생 일반이라는 인식과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었다. 이는 본 탐색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으로서는 여러 국적의 집단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77쪽-93쪽.

- 박혜인(2018). 제한 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인
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제1
권 제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63쪽-76쪽.
- 이금동, 류영진(2021). 韓国語の「親日派」の誤訳報道がもたらす日
本社会への影響力分析-北部九州の大学生のアンケート調査
-, 미간행논문.
- 이선영·이홍직·조형범(2021). 일본 거주 한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응 스트레스 영향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6권 제2호,
한국웰니스학회. 275쪽-281쪽.
- 이송이·심태은(2018). 유학생에 대한 한국대학생의 인식유형 연
구, <주관성 연구> 제41호, 한국주관성연구학회. 5쪽-28쪽.
- 정지아·부향숙(2018). 한국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들
의 인식유형, <다문화교육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다문화교
육학회. 169쪽-198쪽.
- 함윤주(2019). 중국인 유학생 대상 역사 문화 교육 방안: 주제 중
심 접근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제3
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115쪽-140쪽.
- 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2021). 2021년 제2차 기업 및 취업 지원
협의회 자료.
- Kerlinger, F. N.(1986). *Foundation of Behavioral Research(3rd
ed.)*, Renhart and Winston.
- Stephenson. W.(1953). *The Study of Behavior: Q 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小宮修太郎, 平形裕紀子, 長能宏子(2001). 日本人の話し方について
留学生が持つ印象とその要因-中国人・韓国人・台湾人留学生
の比較-, <筑波大学留学生センター日本語教育論集> 16, 筑
波大学留学生センター. pp.47-82.
- 中山亜紀子(2007). 韓国人留学生のライフストーリーから見た日本人

学生と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の特徴: 「自分らしさ」という視点から, <阪大日本語研究> 19,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日本語学講座. pp.97-127.

岡村佳代, 文吉英, 加賀美常美代(2016). 多文化就労場面における韓国人元留学生の異文化間葛藤と解決方略, <高等教育と学生支援: お茶の水女子大学紀要> 7, お茶の水女子大学. pp.106-119.

文吉英, 岡村佳代, 加賀美常美代(2018). 韓国人元留学生社員の職場で働く意味と職場における存在意義の認識, <東京福祉大学・大学院紀要> 8(2), 東京福祉大学・大学院. pp.139-149.

国際交流基金(2020). 海外日本語教育機関調査.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2020). 2019(令和元年)年度外国人留学生在籍状況調査結果.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2021). 2020(令和2)年度外国人留学生在籍状況調査結果.

山本晋也(2020). 留学生はいかに自身のキャリアを形成していくのか-留学・兵役・就職を経験した韓国人留学生の事例から, <일본어교육연구> 51, 한국일어교육학회. pp.133-148.

文部科学省(2021). 外国人留学生在籍状況調査及び日本人の海外留学人数等.

経済産業省(2002). 九州の留学生数及び留学生の就職数, <https://www.kyushu.meti.go.jp/seisaku/kokusai/ryugakusei/ryugakuseiisu.html> (2022년 5월 20일 검색)

필자 소개

성 명 : 류영진

소 속 : 규슈산업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과

주 소 : 일본 후쿠오카현 히가시구 마츠카다이 2-3-1 [우편번호]813-8503

전자우편 : ryu@ip.kyusan-u.ac.jp

투고일: 2022. 5. 31 / 심사일: 2022. 6. 30 / 심사완료일: 2022. 7. 4